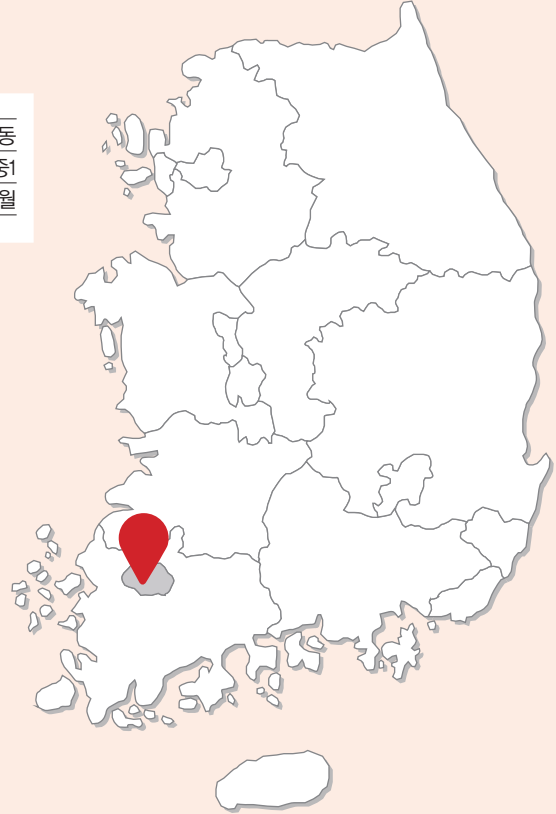


“두 아이의 진로 탐색에 많은 도움 돼요”

거주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자녀	중3, 중1
구독 기간	1년 4개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온라인 카페에서 저도 궁금했던 정보를 묻는 질문에 〈내일교육〉을 추천하는 댓글을 봤어요. 찾아보니 유용한 기사도 많고 내용도 알차서 구독했습니다. 매주 잡지가 도착하면 메인 기사를 비롯해 관심 있는 페이지를 접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톱툰이 읽어요.

요즘 자녀 교육과 관련해 고민이 있다면?

큰아이가 중3인데 고등학교 입학 후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할지 막연해서 걱정이 많아요. 저희 아이 때부터 대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거주하는 지역은 일반고 배정 시 운이 많이 좌우하는 편이라 어느 학교로 진학할지 알 수 없어서 미리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대입이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이 가장 궁금합니다.

〈내일교육〉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큰아이는 아직 명확한 꿈이 없어서 진로 탐색이 필요해요.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 중인 둘째는 공대에 진학해 로봇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은 있는데 그러려면 어느 과에 진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요즘은 워낙 학과가 다양하고 명칭도 복잡해서 부모의 경험만으로 이끌어주기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 〈내일교육〉에서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 관심 학과를 찾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돼 유용했어요. 앞으로도 진로 탐색이나 학과 정보를 꾸준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

Reporter's A/S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내년 고부터는 선택 과목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학 입시에서 선택 과목의 영향력 또한 훨씬 커지고요.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교과별 선택 과목의 특징과 변화를 알아보는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바로 알기’ 시리즈를 연재하니 눈여겨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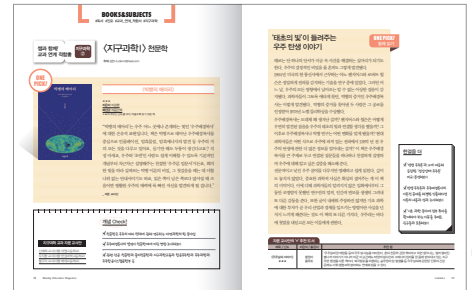


본지 1160호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바로 알기 | 국어 1’
기사 참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1162호

쌤과 함께! 교과 연계 적합書_ 지구과학 ② 〈지구과학 1〉 천문학

“두 아이의 독서 지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매호 꼼꼼하게 읽는 기사입니다. 첫째는 인문 계열, 둘째는 자연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해줘서 무척 유용하게 활용해요.”



1162호

EDU CALENDAR | 이 주의 추천 활동

한국의 열을 담아낼 청소년 크리에이터, 어디 없소?

“지방에 살다 보니 정보를 접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가보거나 참여할 만한 행사를 소개해 꼭 챙겨 봐요.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알려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